

낙동강 1300리 물길 따라 시간의 위대함을 보다

'낙동강 에코트레일' 1구간 태백 황지~봉화 석포역

낙동강은 '가락의 동쪽'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기서 가락은 상주다. 강은 국가의 권리 편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나누는데 낙동강은 크게 지방하천 황지천, 지방하천 낙동강, 국가하천 낙동강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시 함백산(1537m) 아래 황지못에서 발원하여 반변천, 내성천, 영강 등의 지류를 받아 당지를 키운 뒤 상주 남쪽 위천과 선산 감천, 대구 금호강, 남지 남강을 합친 뒤 흐름을 동쪽으로 바꾼다. 삼랑진에서 밀양강을 합치고 을숙도를 지나 남해로 흘러 들어간다. 강원도 태백시 황지못에서 부산 을숙도 하굿둑까지 새로 조명되는 '낙동강 에코트레일'.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 역동하는 낙동강의 힘을 만나본다.

해발 680m 도시 한 가운데 황지못
하루 지하수 5천t 솟는 낙동강 발원지
고생대 화석·퇴적암 흔적
강물이 산을 뚫은 구문소 장관
웰빙 로드 따라 27.5km 뚜벅뚜벅

부 산에서 비 내리는 새벽길을 달려 태백에 도착했다. 황지에서 비가 갠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배낭을 추스려 첫발을 내디딘다.

도시 한가운데 황지가 있다. 낙동강의 발원지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황지에서는 맑고 깨끗한 지하수가 하루 5000여 톤이나 끊임 없이 솟는다. 태백시 손정식 문화관광 해설사가 황지의 속은 깊이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해발 680m에서 물이 솟는데 수온은 추우나 더우나 섭씨 12도 정도라고 했다. 물길은 이내 복개 수로로 사라졌다. 태백시는 2018년까지 여기서 황지천 구간을 걷어내 복원한다고 한다. '낙동강 1300리 여서 시작되다'란 비석 앞에 부산서 가져간 금정산막걸리를 한 잔 올렸다.

비가 내려 그런지 황지천의 물은 칼칼 흘렀다. 물색은 짙은 회색. 한때 석탄을 많이 캐낼 때는 짙은 먹빛이었다고 한다. 물색은 열어졌지만, 여전히 검었다. 태백문화원에서 근무했던 안호진 씨는 태백은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인수도 좋고, 경기도 많이 위축되었다고 했다. 안 씨가 자작나무 수액을 권했다. 고로쇠 수액보다 맑고 맛은 달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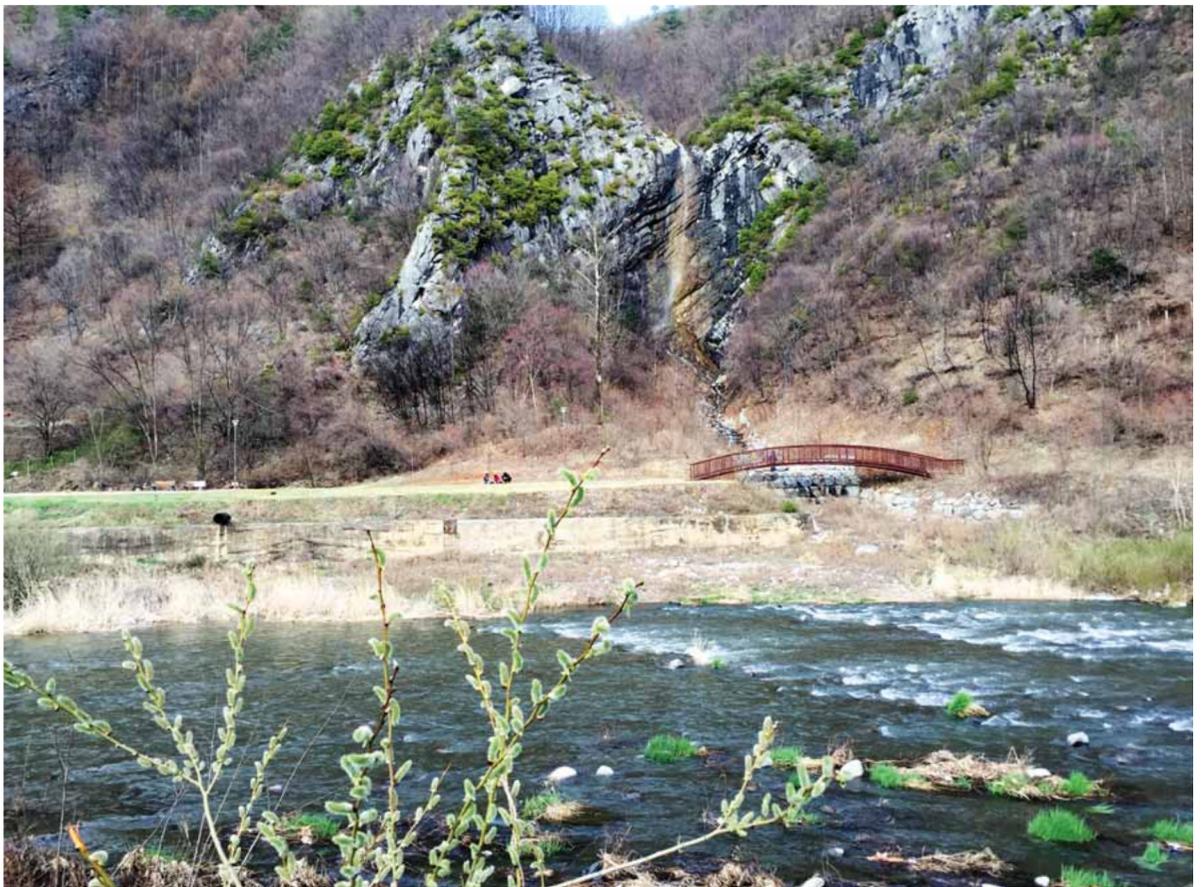
강물은 늘 아래로 흐른다. 산길보다 분명 걷기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하니 미소가 나왔다. 태백시는 황지에서 구문소까지 '웰빙 로드'로 놓았다. 막상 걸어 보니 좁은 인도에 가로수까지 심어 썩 쾌적한 것은 아니었다. 태백체육관 앞에서 길이 끊겨 잠시 당황했는데 왼쪽 황지천 다리를 건너가면 되었다.

고원 도시 태백에는 봄이 한창이다. 벚꽃길이 냇가에서 뚝 뚝 빼고 하늘거렸다. 회색 낡은 건물에 '한국진폐협회'라는 간판이 달려 있다. 잔기침이 나왔다. 60~80년대 전국의 안방을 따뜻하게 하던 연탄은 탄광노동자에게 돈과 병을 함께 안겨 주었다. 연탄보일러의 따뜻함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어릴 적엔 몰랐다.

장성여고 앞에서 큰길을 버리고 옛 도로로 걷는다. 비탈진 절벽에 생강나무꽃과 진달래가 사이좋게 피어 있다. 안내판이 있어 들여다보니 오래전 지구의 속살인 암석과 지질을 설명해 놓은 것이다. 석포까지 이어지는 낙동강 절벽 곳곳에 이런 안내판이 있다.

철로 아래를 지난다. 때마침 석탄을 실은 화물열차 한 대 광음을 내며 지나간다. 한때 개도 지폐를 물고 다녔다는 장성에는 단 한 곳의 탄광만 남았다. 신촌 마을 인근에 거대한 수직갱도 철골구조물을 갖춘 대한석탄공사 2수갱이 그곳이다.

물길이 심하게 굽이치는 곳에 태백 장성 이종교가 아직 있다. 위는 철로이고 아래는 차량과 사람이 다녔다. 태백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인데 근대화의 상징적 존재다. 지금은 새로운 다리가 하나 더 생겨 삼중교다.



■ 낙동강 에코트레일



<부산일보 제공>

▲태백시 장성동 비외야폭포에 있는 비외야폭포. 원래 이름은 연화폭포인데 평상시엔 건폭이다. 비가 많이 오면 폭포수가 쏟아진다.

장성에 있는 태백경찰서에도 오래된 건축물이 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시멘트 망루이다. 진폐 환자 치료 지정 병원으로 유명했던 장성 중앙병원은 현재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정문에 해고된 노동자들이 시위하고 있다. 80년대 유행했던 노동가를 아직도 부르고 있어 애잔했다.

학교병을 배출한 태백중학교를 지나 옛 도로를 따라 걷는데 레미콘 공장 벽에 구호가 선명하다. '부지런해야 잘 산다'. 도로이름이 독특했다. '비외야절벽로' 실제로 그 마을엔 비가 와야 물이 떨어지는 절벽이 있었다. 다행히 오전 내내 비가 와서 비외야폭포(연화폭포)를 볼 수 있었다.

메밀밭센터에서 목을 축이고 삼엽충과 암모나이트 화석이 전시된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 도착했다. 시간이 늦어 야외에 전시된 삼엽충과 암모나이트 화석을 보았다.

박물관 아래에 구문소가 있다. '물은 산을 건너지 못하고 산은 물을 가른다'는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이 어긋난 곳. 달갈로 바위를 깎 수 있다는 자연의 의지를 보여주는 곳. 바위를 뚫은 물의 힘에 숙연해지는 곳이

구문소다. S자로 흐르던 물줄기가 수만 년 동안 구문소 바위 절벽을 맨몸으로 부딪쳐 마침내 물길을 낸 것이다.

사시랭이 마을에서 통리에서 내려온 물길에 보타저 황지천이 더 늠름해졌다. 동점역은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인지 출입구를 폐쇄했다. 동점역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 아침 다시 길을 걷는다. 동점역에서 석포까지는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좁은 길이라 주의해서 걷는다. 빨리 달리는 트럭에 바짝 긴장하며 드디어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도계에 다다랐다.

'하늘이 내린 땅, 살아 숨 쉬는 땅 강원도'와 이별하고 '전통과 문화 자연이 함께 하는 경상북도'로 들어섰다. 물은 어느지 모르는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쉽게 아래로 흘렀다. 육송정 삼거리에서 석포까지 도상 거리는 3km. 아침 햇살을 받은 강은 몽환적인 안개를 뿜어 냈다. 1구간 종착지인 석포역에 도착하니 목련이 활짝 피어 반겨주었다. 27.5km를 걸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 글·사진 부산일보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취재 협조=낙동강유역환경청



구문소를 지나면 통리에서 내려온 계곡물이 물을 보태 황지천이 꽤 넓어진다. 비로소 낙동강의 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난다.

유탑 유블레스호텔 제주

제주 바다 앞 프리미엄 수익형 호텔 유탑 유블레스호텔 제주

에메랄드 빛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뛰어난 조망과 옥상 바비큐장, 야외테라스, 옥상정원 등 수준 높은 부대시설 고품격 설계로 눈부신 미래가치가 펼쳐집니다

제주현장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269-9번지 (함덕해수욕장 바로 앞, 올레 19번길)

모델하우스 서구 농성동 481-28번지(상록회관-리퍼스타워딩 옆)

분양문의

1600-2949

1 **연 12% 10년 확정수익보장**
(실투자금 대비 VAT 제외/50% 대출조건)

2 **계약시부터 계약금×연 5% 수익지급**

3 **연 10일 무료숙박** (성수기 2일/비수기 8일)

계약고객 상품권 증정

■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컷으로 실제 사명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